WORLD MISSION HERALD

"TRANSFORMATIONAL BIBLICAL EDUCATION" 월드미션대학교 제 21회 졸업 특집

WORLD MISSION UNIVERSITY

목 차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이금희, 임종호, 윤명주, 정현성
발행일 2012년 5월 24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informations@wmu.edu

예수님의 위대한 생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38-40

이 지구 상에는 인간 역사가 시작된 후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고, 현재도 약 65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인생을 제일 위대하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 사람들은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 이 네 분을 말합니다. 이 네 분 중에서 누가 더 위대하게 살았느냐고 물을 때에는 신자는 물론이고 불신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꼽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불란서의 나폴레옹은 "나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결코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께는 무릎을 꿇는다" 고 하였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나는 인류 역사상 사람다운 사람 두 사람을 봤는데 하나는 소크라테스요, 다른 하나는 예수다"라고 말했고, 인도의 간디는 "나는 힌두교인이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는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는 존경한다" 고 하였습니다. 주후 3세기,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하였던 로마 쥴리안 황제는 마지막 죽을 때 최후에 남긴 말이 "오- 나사렛 청년이여 그대는 이기었구나" 하고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책 한 권 쓴 바 없지만 지금 지구 상에 있는 신학교, 시립도서관, 국립도서관에는 예수님에 관한 책이 수천 만권이 있고, 그 분은 교회 하나 세운 적 없지만 오늘 지구 상에는 수백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원 하나 세운 바 없지만 오늘 지구 상에는 예수 이름으로 세운 수십만 개의 병원이 있고, 찬송가를 한 곡도 작곡, 작사한 바 없지만 오늘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수백만 곡이 있습니다. 그 분이 탄생한 크리스마스 날에는 전쟁도 하루를 휴전하고 인류 역사의 기점을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으로 계산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문벌도 없는 분입니다. 공자는 양반집에서 태어났고, 석가는 왕자로 태어났고, 소크라테스는 중류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예수님은 노동자 목수의 집에서 태어난 문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학벌도 없는 분입니다. 공부는 환경이 좋아야 하고 뜻이 있어야 하고, 시간이 있어야 하고,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하는 것인데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는 이런 조건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이력서에는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며, 아버지를 따라 노동자 목수일만 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공자는 74세를 살았고, 소크라테스는 70세를 살았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절반도 안 되는 33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도 3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인류 역사에 위대한 발자국을 남기실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3대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40년, 플라톤이 50년, 아리스토텔레스가 40년을 가르친 것을 합해 130년이 되는데, 이 세 철학자들이 130년 동안 가르친 교훈보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3년 동안의 교훈이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오늘날의 지성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39절에 나와있는 말씀이 바로 그 답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자기의 그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위대하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곡히 소원했고, 결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일편단심,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33살에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라는 명령에 절대 순종으로 죽으심으로 짧게 사셨지만 위대한 삶을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벌도 학벌도 없이 3년의 공생애를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사신 것은 자기 부정, 종 되어 섬김, 원수 사랑, 자기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임동선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명예 인문학 박사 학위기

이영대 선교사

월드미션대학교는 제 21 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훌륭한 신앙인이요, 모범적인 선교사인 이영대 선교사에게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이영대 선교사는 1943년에 출생하여 동아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그 후 1970년, 브라질로 이주해 '재백 한국 선교회'를 조직하여 11년간 총무직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20여 곳의 한국 농어촌 교회를 지원하였고, 김창인 목사를 초청해 북한 선교에 힘쓰는 한편, 브라질 현지인 교회 개척에도 매진했다. 1991년, 미국으로 재이민 했지만 브라질 선교의 중요성을 잊지 못해, 2005년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되어 다시 브라질 땅을 밟게 되었다.

이영대 선교사는 브라질 목회자의 80%가 적절한 신학교육 없이 목회하는 안타까운 실정을 잘 알기에 도착 당월부터 제1회 현지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현지 목회자들이 섬기는 교회를 차례로 방문, 해외 선교를 독려하였다. 그 결과 총 여섯 가정의 해외 선교사가 현지 교회를 통해 파송받기에 이르렀다. 이영대 선교사는 브라질 목회자들의 정규교육을 위해 2006년 6월, 3년제 성경학교를 개교하였고, 졸업생이 배출될 즈음에 4년제 신학교를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브라질 현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살피기 위해 서부 아프리카 방문을 시작하면서 지도자 세미나 개최, 학교 교실 건축, 교회당 건축, 단기 선교팀 유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2010년 10월에는 아프리카에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이영대 선교사는 브라질과 서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세 곳의 신학교를 통해 120여명의 신학생을 섬기면서 '목사를 부끄럽게 하는 평신도 선교사'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귀감이 되고 있다. 이에 본교는 박사 학위 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영대 선교사에게 명예 선교학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2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구약의 목회자상과 리더쉽

차준희 교수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관하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하는 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많는 교훈을 줍니다. 이 글에서는 구약 성서 속에 나타나는 영적 지도자의 소명과 모델들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도자에게 있어서 소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는 것입니다. 소명은 주로 2가지 소명 패턴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름 받은 자가 저는 못합니다 하며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득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렘 1:5), 예레미야의 거절(렘 1:6), 하나님의 설득(렘 1:7), 하나님의 동행 약속(렘 1:8), 이 4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소명 패턴으로 보통 우리가 아는 패턴입니다. 둘째는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최초로 발견한 예언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고, 그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려고 하실 그때 그 미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Missio Post Visio'(Mission after vision)).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답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소명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지 않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가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소명을 직접 소명이라고 말한다면, 이사야 소명은 간접 소명이고, 예레미야의 소명을 강압적 소명이라 말한다면, 이사야의 소명은 자발적 소명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소명 중에는 하나님의 직접적 부르심도 있지만, 내 안에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간접적으로 이끄시는 것도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구약의 핵심적인 리더들은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이 리더십의 역활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앞으로 말씀 사역자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은 구약의 이 세가지 리더쉽을 계승한 사람들임을 알고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선지자/예언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預言)이란, 미리 어떤 일을 점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움 받은 것으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중보자이며, 하나님의 맡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브라함, 모세, 사무엘처럼 중보 기도자여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초로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라 불리운 사람입니다(창20:7; 참조. 창18:16, 17, 22, 23; 창 12장, 20장, 22장).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렘 14장)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앞에서 쫓아 내보내라"(렘 15:1)는 말씀은 구약에서의 기도의 대명사인 모세와 사무엘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금송아지 사건(출32:31-32)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며(출32:32) 이들의 지도자인 자신을 먼저 생명책에서 지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참조. 민14:15-19). 사무엘의 미스바에서의 금식성회(삼상7:8-9)에서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기도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지도자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삼상12:19-23)를 보면 지도자가 기도 사역을 게을리 하는 것은 큰 죄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리더쉽은 리더의 중보 기도 분량과 비례합니다. 곧 기도하는 것은 예언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또안 예언자는 메시지의 전달자입니다. 호세아와 음녀라고 표현되는 고멜과의 결혼 사건(호1:2)은 또 하나의 설교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메신저로 사용하실 때 그의 입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부르셨습니다. 결혼을 금지 당하고 자녀를 금지 당하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위로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미래가 없다라는 유다 나라의 임박한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다들 삶 자체가 설교입니다. 즉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메시지 곧 나의

메시지는, 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결(렘28:1-9)에서 우리는 메신저들은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거짓 메시지)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참 메시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신 분의 눈을 살펴야 되는 것이 메신저의 책임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미3:5)에 대한 말씀을 통해 참 메신저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시 1:2).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그리고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뱉어 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둘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여러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 중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호4:4-6)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합니다. 제사장도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로 제사장의 첫째 되는 기능은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죄가 속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 훈련을 받고 그것에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즉, 예배를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여러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신33:8). 곧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기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째, 지혜자입니다. 솔로몬 왕의 1천 번제(왕상3:9)를 통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듣는 마음, 곧 경청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잠18)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 속의 있는 그대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사람을 갈망합니다. 얘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들어줘야 하는데, 이런 것이 지혜자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자의 역할은 삶의 지혜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달한다는 것은 언제 껴안고 언제 좌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보이는 모습입니다(전 12:9-10).

선지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며, 지혜자는 경험된 말씀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직분이 다 말씀 사역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조금 다를 뿐입니다. 선지자의 말은 계시된 말씀, 깨달은 말씀이고, 제사장은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지혜자는 본인이 경험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며,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에스라 입니다(에스라7:10). 기억하십시오. 그는 첫째로 연구하고, 둘째로 준행하며, 셋째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연구해서 깨달았으면 먼저 살아본 후 삶으로 경험된 것을 나누세요. 그래야 그 가르침에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본보기가 가르침보다 낫습니다. 백 마디보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목회자 상과 리더쉽은 3가지입니다. 예언자, 제사장, 지혜자로서 중보기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예배에 모든 것을 쏟고 지혜자로서 늘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내 삶의 지혜를 나누어주면서 사는데 예언자같이, 선지자같이 깨달은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 같이 기억된 말씀을 전하며 지혜자와 같이 내가 경험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Column

교수 칼럼

기독교 상담의 필요성과 과제

김현경 교수

지난 30-40년 기간의 한국교회를 돌아볼 때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아마도 폭발적인 교회성장이 아닌가 싶다. 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더불어 교회는 양적인 부흥을 통해 대형교회들이 생겨나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양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성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은교회의 양적 감소의 주요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영적 갈증과 심리적 공허감을 채움 받지 못한 실망으로 꼽고있다. 경제 발전, 사회 문화의 변화, 정치적 갈등과 혼동, 경쟁적 사회구조와 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그에 미처 따라가지 못해 생겨난 부조화는 결국 가정의 붕괴, 자살, 우울증과 같은 증상들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기독교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도 된 한 조사(심수명, 2005)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독교인이 지각하고 있는 인격적인 문제와 치료받고 싶은 문제들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분노, 완벽주의, 부정적 자아, 불안, 신앙, 죄책감, 편견, 거절감. 우울증, 충동조절, 강박증, 폭식, 성적 문제, 이혼, 재혼, 중독 그리고 폭행들이였다. 기독교인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되고 있지 못한 이런 사회적 현상이 교회 사역에 대해 시사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음을 손운산(2012)은 제시한다. 그는 한국 교회의 양적감소의 현상들을 교회성장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될수 도 있겠지만, 목회 돌봄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영혼 돌봄에 치중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것은 나아가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상처 입은 개인이나 가정을 위한 전문화된 돌봄의 필요를 뜻하는 것이며, 또한 체계화된 돌봄과 상담을 통해 개인과 가족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전문 사역자들을 양성해야 할 책임이 신학 교육에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이민교회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도들이 직면하고 있는 상처 난 내면과 혼돈된 정체성,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의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실질적인 돌봄의 필요성들은 이미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기독교 상담을 영혼 돌봄의 한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소극적인 태도는 기독교 상담학이 심리학과 일반 상담이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모든 상담이론과 기술들의 배후에 깔려있는 세계관의 가설들은 심리학과 신학의 학문적 통합과 임상적 통합의 과제를 통해 반드시 성경적 가르침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기준 아래서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신학 교육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아래 심리학과 신학의 통합적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영적 공동체의 분명한 목적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역 교회와 협력해야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는 혼돈된 가치관과 문화적 영향력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성도들을 체계화된 영혼 돌봄과 성경적인 개입 방식들을 가지고 교육함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영혼 돌봄의 관점에서의 기독교 상담

영혼 돌봄(care of soul)은 큐라 아니마룸(cura animarum) 에서 유래된 것으로 돌봄과 회복의 의미를 가진 cura와 영혼을 의미하는 animarum의 개념을 담고 있다. Benner(2010)는 영혼 돌봄을 "한 인간을 전인적 인격체로 인정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가장 깊고 심오한 측면에 영혼을 관여시키는 방식으로 인간을 돌보는 것이다"(p.23) 라고 정립함으로 심리적 공허함과 고립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영혼 돌봄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 영혼 돌봄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기독교 상담의 관점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분의 영역임 이며 일반적인 심리학적 접근과 개입을 초월하는 것임을 인정하는 것에 근거된 것으로 (McMinn, 2001) 영혼 돌봄의 한 통로로서의 기독교 상담학의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제시된 상담의 5가지의 요소 - 권면(urge), 권계(warn), 안위(encourage), 붙듦(help), 인내(be patient) - 들을 근거로 기독교 상담은 이렇게 정의 해 볼수 있다: 고난과 위기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성경의 원리와 방법에 따라 위로하고 지지하며, 적절한 때에 권면함으로서 그들의 비성경적인 사고, 감정, 행동을 변화시키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회복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하고 전인적인 회복과 성장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영혼 돌봄의 관점에서 기독교 상담은 목양의 관점에서 보는

실천신학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성도를 강하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을 중요시 했던 목양적 관점의 Seward Hiltner (1968)와 영혼 돌봄의 관점으로 실천신학을 보았던 Clebsch & Jaekle (1964)에 의해 목양은 치유, 지탱, 인도, 그리고 화해의 네 가지 분야로 정립되었다. 치유(healing)는 결함이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원 상태로 회복하면서 인격적인 재구성을 도모함으로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이며 지탱(sustaining)은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 불가능한 자들(이혼, 불치의 병, 상실, etc.)에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현상을 보존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들을 재구성하여 새 출발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세 번째 영역인 인도(guiding)는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결심이나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화해(reconciliation)는 단절되어있는 하나님과 사람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돕는 사역이다. 이 네 분야의 목양을 잘 감당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World Mission University 상담학과에서는상담의 이론과 실제, 결혼과 부부상담, 위기와 비애상담, 다문화 상담, 성경과 심리학의 통합, 아동과 청소년 상담, 병리적 이슈들과 같은 과목들을 통해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곳에서 훈련받은 기독교 상담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인간과 그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젼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로 회복시키는 목양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역교회 사역으로서의 기독교 상담

전통적인 개념에서의 상담은 도움을 찾는 한 개인, 그룹,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상담자와의 만남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게리 콜린스(1986)는 전통적인 상담 접근은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문화적 요소들에 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식에 의해 보완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교회내 상담사역의 경우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용이다. 그러므로, 교회내 기독교 상담 사역은 (1)이미 당면하고 있는 성도들의 문제들에 대한 성경에 근거된 실제적인 접근 방법을 상담을 통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개인 상담은 물론, (2)인간의 내면과 정체성 회복, 인간의 발달 단계의 과정과 단계적 위기, 인간관계와 대화들을 주제로 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을 제시하는 것과, (3)공통적인 문제들로 고통하는 성도들의 만남을 주도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지지 그룹들을 통해 접근해 나갈 수 있다. 상담의 컨텍스트는 진리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진 내면의 질서를 재정립해 나가는 가장 실제적인 적용의 현장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고통은 변화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인 수용이 존재하는 안전한 영적 공동체 안에서 표면적인 문제와 증상밑에 깔려있는 더 깊은 근원적인 문제들과 죄를 깨닫게 되는 발견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랩 Crabb(1977)은 비적절한 삶의 방식으로 인해 고통과 갈등에 붙들려 있는 성도들을 전인적인 회복과 의미 있는 생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지역교회가운데 있음을 강조한다. 심수명은 좌절과 압박감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목회적 대안으로 설교, 예배, 교육, 심방등의 목회영역가운데 영혼 돌봄과 상담적 관점들을 적용함으로 치유, 유지, 인도, 화해, 양육을 통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능적으로 돕는 상담목회라는 새로운 패라다임을 제시한다.

World Mission University는 말씀으로 변화받아 교회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독교 상담학과에서는 체계화된 영혼 돌봄과 강화된 기독교 상담 교육들로 교회와 사역자들을 섬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부르심에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고자 한다.

〈Reference〉

▶심수명.(2005). 기독교 상담과 인지치료를 통합한 인격치로 프로글배의 효과성 연구. 목회와 상담, 6. 253-291.

▶손운산.(2011). 한국 목회돌봄과 목회상담의 역사와 과제. 목회와 상담, 17. 7-36.

▶McMinn, R. M. (2001). Psychology, theology, and spirituality in Christian counseling. Wheaton, IL: Tyndale.

▶Benner, D. (2010). Care of souls. 전요섭 & 김찬규역, 영혼 돌봄의 이해, CLC.

▶Clebsch, W. & Jackle, C. (1964). Pastoral care in historical perspective. Englewood Clifs, NJ: Prentice Halls

▶Crabb, L. (1987). Understanding People. Grand Rapid, MI: Zondervan.

▶Hiltner, S. (1968).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민경배역, 목회신학원론, 대한 기독교서회.

오늘날 예배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역사성과 현실성 조합이 관건"

윤임상 교수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듣는 찬양은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어떤 답변을 할 수 있을까? 시대가 급속도로 바뀌면서 개신교 예배음악이 변화의 목소리와 보수적 존립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거취 고민을 해오고 있다. 특히 미주한인교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도드라지는데, 청년들이 부모님을 따라 다니던 중 장년 교회를 떠나는 현상도 이와 연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개신교 예배음악은 지금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가? 그것은 교회의 존립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충돌해 온 두 시각을 수면위로 올려 이론정립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본다. 그리하여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특히 음악지도자들은 전통과 현대의 대립을 올바르게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예배음악,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의 의미란?

예배음악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 예배의 의미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예배는 곧 말씀이다라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말씀이 상위에 섬으로 인해 찬양은 상대적으로 이를 지탱하는 보조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예배음악은 말씀을 따라 경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성스럽고 경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곧 말씀이다라는 논리에서는 예배음악은 언제나 고정된 패턴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찬양과 기도, 교제가 우선 순위를 두지 않고 동등한 위치에 설 때 참 예배가 나온다고 봅니다. 예배음악은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배를 이루는 동등한 요소로서 예배음악은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배음악을 보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 미주 한인교회가 가진 예배음악의 현 주소라면?

미주한인교회의 예배음악의 패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3-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느리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 한때 유행했던 것들은 3년 정도 지나면 미주한인교회가 답습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 있으니 미국주류교회음악의 영향을 받지 않겠나 라고도 생각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체성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미주한인교회에서 연주하는 예배음악에는 미주한인교회만의 정체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로 드러나면서, 세대와의 갈등과 교회 안에서 예배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음악이 시대에 맞지 않고 대상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모르고 말씀이 좋고 나쁨만을 탓합니다. 예배를 이루는 요소들의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야 합니다.

▶ 그렇다면 예배음악의 변화는 필요한가?

역사적으로 보면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예배음악은 변화됐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찬송학자인 아이삭 왓츠의 예를 들어 볼까요? 그가 새로운 찬송을 만들자 당시 영국의 경건주의자와 장로교인들은 엄청난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당시엔 칼빈의 제네바 시편가를 그대로 부르는 것이 곧 진리였습니다만 아이삭 왓츠는 시편가를 패러디해서 곡으로 만들어서 보급하려 했습니다.

당시의 반대는 정말 엄청났지만 그로부터 25년이 흐른 뒤, 그는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그가 쓴 찬송은 자연스럽게 보급이 됐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예를 보면, 2차 대각성 부흥운동에 등장했던 복음찬송가를 들 수 있습니다. 음악 하나로 당시 기독교로 교화된 인구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 당시 활동했던 대표적 부흥사인 무디, 같은 목사에겐 말씀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청교도들이 반대했던 복음찬송가를 통해 그 시대에 맞는 음악을 만들어 부르며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늘날은

CCM이라는 장르가 교회 안에서 옳은지를 두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시대는 CCM같은 곡들을 허용하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변화의 대한 요구는 앞서 예를 들어서보듯 교회의 성장과 더 많은 교인들의 교화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 변화를 인정한다면, 올바른 도입은 어떤 것일까요?

개신교 예배음악이 전통을 중시했을 때 장점은 역사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을 대표해서 잘 훈련되고 정제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CCM같은 장르는 회중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회중들 모두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장르라고 봅니다. 중세교회가 몰락했던 이유는 바로 회중들이 구경꾼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오직 사제들의 전유물이었고, 회중들은 찬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4세기 밀라노 칙령 이전의 교회들을 보면 회중들의 찬양은 정말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예배음악은 다시 회중찬송으로 돌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중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 회중찬송을 하는 CCM이라는 장르는 너무 시끄러운 음악 연주 때문에 자칫 메시지 전달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음악이 변화의 몸짓을 하려면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개념에 대한 이론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러한 이론 정립은 보수와 개혁성향의 예배 음악가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 CCM 장르가 올바른 회중찬송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CCM의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만들어내는 멜로디와 가사를 들어보면 정말 경배찬송들로 은혜로운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CCM이 가진 문제점을 보면 왜 CCM이 교회 안에서 예배음악으로 자리 잡는 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텍스트 전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가사의 내용이나 멜로디는 참 좋습니다. 요즘 젊은 한인 청년들의 음악적 감각도 뛰어납니다. 하지만 가사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너무 큰 음악 연주로 인해 희석되어 지게 됩니다. 음악만 있지 가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주류교회의 젊은 CCM 음악을 들어보면 텍스트가 잘 전달 됩니다. 음악 연주와 텍스트 전달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그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조합입니다.

▶ 그렇다면 개신교예배음악의 미래는?

먼저 언급했듯 조합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로 예배음악을 생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주목해야 합니다. 클래식만 하시는 분들은 역사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CCM을 하는 쪽은 상대적으로 역사성이 부족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음악의 미래는 이 두 가지의 조합에 달렸습니다. 전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날 이민 교회의 개신교예배음악의 미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 Fallacy In the Sermons

송운철 교수

Listening to the sermons at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many preachers appear to presuppose that the accounts in the Gospels contain in themselves all the details of the events that they are addressing. In fact, however, the biblical accounts in general contain only partial details, which are relevant to the believing communities in the first century and/or the compositional purpose(s) of the bible authors. I like to call and point out such a historical and compositional premise 'all-the-detail-presence fallacy,' which often results in serious interpretive distortion and consequently misleading sermons. An example is helpful.

When one preaches John 2:1-11(Jesus' miracle to change water to wine at Gana in Galilee), (s)he may enthusiastically conclude that Christians must be quiet with no words of complaint and simply follow the words of the leader, if they want God's miraculous intervention in their lives, in spite that the words of the leaders appear unreasonable and incompatible with common sense. Often the absence of the servants' compliant in the account is suggested as the basis of the conclusion, which is usually reinforced with Mary's command in v. 5, "Do whatever he (Jesus) tells you." The application introduced at the end of the sermon is not hard to guess: Christians have to be obedient to the pastors to see God's miraculous help in their lives.

The central message of the Gana account in the Fourth Gospel, however, is not about the proper attitude of the servants at the time of miracle at all. Rather, it tries to show the gift of the Son of God who ushers in the present reality of the kingdom of God. Here we see an example of how the 'all-the-detail-presence fallacy' distorts interpretation process and brings about erroneous application.

To find the message of the Gana miracle account, preachers need discard the 'all-the-detail-presence fallacy,' give attention to the whole story of Jesus in the Fourth Gospel, and focus on the Gana miracle account itself enough to listen to its voice. Preachers are allowed to stand at the pulpit only after they do this job successfully. After all they cannot and should not preach without knowing the true meaning of the sermon text. I like to elaborate on this point a little bit more.

When we compare two versions of the healing account of the centurion's servant in Matthew 8:5-13 and Luke 7:1-10, immediately we find that two accounts are not identical with each other. One of the major discrepancies between them is Luke and Matthew's characterization of the centurion; Luke's version presents him to be a man of great merit enough to draw Jesus' miraculous help for himself since he did many good things for Jews (Lk 7:4-5). In Matthew's version, however, he appears to have no such a merit but have great faith that even Jesus admires (Mt 8:10). One more significant difference is Jesus' words in Mt 8:11-12, which are present in Matthew's version but absent in Luke's version. Originally these verses are not part of the account as shown in Luke's version. Matthew, however, decided to include them in his account at the end of the story. As a result, a new form of the account came into existence, conveying a new message to Matthew's own audience; in his version Matthew tries to reassert the Christian way of salvation over against the Jewish way of salvation. For this he reshaped the Q material by adding and getting rid of the verses.

Being aware of such nature of the Gospel accounts, we see why one should interpret the Gospel accounts not based on what is absent but based on the whole accou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background of the book to which the account belongs. Hardly we can draw conclusion or application from what is absent in the account. Obviously a safer way to preach God's message is to preach the central message the text tries to convey through its whole story as it is.

I like to suggest preachers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sermon texts before going to the pulpit, if they want to be a faithful preacher. There are good exegetical commentaries and books on biblical interpretation the preachers, willing to spend time for a good sermon, draw upon. A successful preacher is not one who creates a moving massage "using" biblical texts but one who discerns the inspired message in the text and preaches it in a way that enhances Christian way of living in the modern world.

졸업식 답사

이재식 학우

무엇보다 먼저 태초부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주시고, 인생이라는 긴 여정 가운데 오늘의 귀한 만남과 축복의 자리를 계획하시고 마련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주님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스승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종이요, 제자로 저희보다 먼저 믿음의 선배로 부름을 받으시고 지금의 이 귀한 축복의 자리가 있기까지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총장님과 교수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께 진정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희는 우리 월드미션대학교를 통하여 세계 어느 신학교에서도 보기 드물게 교육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한 세계 원근 각처 어디에서라도 최고의 강의와 교육 컨텐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눈부신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지난 21년간 교수님들과 교직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땀방울과 눈물, 그리고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지난 해에는 ATS 인준이라는 놀라운 쾌거까지 이룩하였고, 이를 통해 믿음의 후진들에게는 더욱 큰 자부심과 교육의 길들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월드미션대학교를 귀히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 분들의 눈물 어린 노고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후학들을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려 드리며,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은혜와 특별하신 축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학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인생과 신앙의 또 한 시즌을 지나, 저마다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자랑스런 월드미션대학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인 "성경 중심의 선교적인 열정을 가진 교회와 세계를 위한 지도자"로서 성장해 가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Stop learning today, Stop leading tomorrow",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을 멈춘다면 내일 가르치고 이끄는 것 역시 멈출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는 리더가 되어야 하며, 또한 자랑스런 월드미션대학인으로서 세계 어디에 있든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이 되도록 항상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와 사명 안에서 항상 서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없이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더욱 신실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지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총장님이 늘 외치셨던 것처럼, 우리 월드미션 학우들이 지구촌이라는 전 세계를 목장 삼아 지구촌 곳곳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 월드미션대학교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수준의 추수할 일군들을 끊임없이 배출하는 지적, 영적 요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총장님과 교수님, 이사님, 학교 후원자, 교직원, 내빈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졸업생 학우들과 가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One Dash(-) For Jesus Christ

사도행전 20장 22-24절

유일상 학우

우리는 흔히 인생을 이야기 할때 dash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묘지에 가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묘지에 가보면 모든 묘비마다 한 인생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고 그 사이에 놓여진 하나의 dash 를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셀 수 없는 수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신 하나의 짧은 선, 즉 dash 안에 모든 것을 함축하게 됩니다. 왼쪽에서 시작된 우리의 dash 인생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른쪽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른쪽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의 dash 인생은 거대한 시간의 흐름속에 서서히 잊혀져 갈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임을, 개인의 신앙과 믿음과는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의 dash인생을 통해 어떠한 삶을 살며 무엇을 남길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위해 살았던 한 인생이 남긴 가장 위대한 삶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3번에 걸친 전도 여행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에 이르는 그의 마지막 전도 여정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 23절에서부터 21장 16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밀레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 마지막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고별적이자 유언적인 설교를 전한 뒤 예루살렘에 이르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의 dash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고 또 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번째로, 바른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그는 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이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바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기록과 같이,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의 삶을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하나님이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 시작하신 인생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른 사명에 대한 인식과 확인을 갖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이렇듯 바울 생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됨같이 그의 삶의 목적 아니 그의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기에 충분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바른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바른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dash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바른 사명에 대한 확인 뿐만 아니라 두번째로 가슴속에 바른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별 설교를 통해 바른 열정이란 자기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한다는 것임을 자세하게 이야기 합니다. 이후 고별 설교를 마친 바울은 두로와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해를 당할 수 있으니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의

뜨거운 열정 만큼은 그 누구도 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떠한 설득과 협박에도 그는 그의 사명을 접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바른 열정은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dash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바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으로 늘 가득차 있었습니다.

세번째로,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바울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는 그를 향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메임을 받는다"는 표현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던 중 아주 강하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2월 28일 고 김영희 학우님의 장례예배를 통해서였습니다. 평소에 전도띠를 두르고 해맑은 미소를 지으시던 학우님, 항상 먹을 것이 있으면 사탕 하나라도 건네주며 힘내라고 하시던 학우님, '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공부하고 전도해요'라고 말씀하시던 학우님… 소천하시기 전날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전도하셨다는 집사님의 조사를 들으며 이 말씀이 분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령에 메임을 받아..."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홈리스 형제를 위해 가지고 있던 백불을 다 쓰라고 말씀하셨다며 전날 중국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에게 옷을 사주고 담요를 사주셨음에도 또 다시 중국타운에 들려 가지고 있던 전재산인 백불마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아~ 정말로 성령에 메임을 받아 산다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있었고, 그러한 삶을 입술과 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며 살아 가신 귀한 학우님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얼마나 기쁘게 맞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 김영희 학우님의 삶을 생각하며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구나'라며 안타까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 김영희 학우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의 dash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외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바른 인도를 받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학우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라구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 가는 것, 그리고 주어진 사역을 이루어 가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뜻 뒤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포기하기 못한 나의 나라와 나의 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지금은 고생이지만 공부 마치면 좋은 사역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조금만 참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학우님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최소한 사명자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dash인생을 살아야 할터인데, 그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우진 바른 사명인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여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라는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이루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열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 드리며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성령충만한 삶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온전히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 분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또 사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 무엇을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어디를 가야지만 이룰 수 있는 내일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강의실에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시작되었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림(Dream)을 만드는 드림(Offer)

요한복음 6장 5-13절

서무생 학우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꿈(Dream)'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첫째로, 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며, 둘째로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고 셋째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꿈을 이룬다는 것은 바로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든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 포기한 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이야기는 사실 너무 흔해 오히려 놀라움의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흔히 들어 알고 있지만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한 아이' 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네 복음서 중에서 '한 아이'에 대한 언급은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은…'과 같은 소유의 표현만을 할 뿐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서술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서술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 왜 요한복음에서만 이 '한 아이'에 대한 것이 서술되고 있을까요?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네 가지의 복음서는 서로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에 따라 조금씩 다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마가 복음이 최초로 쓰여졌고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였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요한 공동체 즉 지금으로 말하면 각각의 교회들이 처한 성도와 시대적 상황들이 달랐기 때문에 각 복음서의 저자들은 각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과 시대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서의 저자도 당시 요한 공동체에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이 기대하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이시며,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즉 기존 성도들의 기독론적 확신을 위해 요한복음을 썼다고 추정합니다. 그럼, 왜 요한복음서의 저자만 '한 아이' 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서의 저자가 이 '한 아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 입니다. 이 '한 아이'가 가지고 있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당시의 가난한 백성들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서로 따진다면 제 생각에는 아마도 보시는 그림과 같은 그냥 밥과 김치와 계란이 들어 있는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모인 일반평민에게 조차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에게는 소중한 음식이자 자신이 가진 전부이었을 것 입니다. 그리고, 이 '한 아이'가 행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 5천명이 배불리 먹고 남기는 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생각, 특히나 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아직은 어린 이 아이의 마음에 "혹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먹을것은 챙겨 놓을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아이의 마음에는 조금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아이의 마음에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바탕으로 생긴 믿음을 통해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거야!"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드림의 믿음을 통해 기적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고 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지 못 하셨을까 하는 것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없어도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 아이'의 마음을 보신 것 입니다. 그가 주님께 드린 것이 얼마 안되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기적을 믿으며 드린 것입니다. 그 아이가 만일 드리기를 거부 했거나 그 떡과 물고기를 붙들고 안 놓았다면 성경의 역사상 찬란한 이야기 하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오는 것을 요구 하신다는 것 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 열정들에 있어서 전부를 드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못하나 그는 우리의 가진 것을 요구 하신다는 것 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소유를 예수께 드리지 않기 때문에 무수한 기적과 승리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예수께 모두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드림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 '한 아이'에 대해 기록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 정성, 사랑을 드릴 때 그 것을 통해 주님이 일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모든 학우분들 모두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Dream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학교 소식

Costa Rica 단기선교

6. 25. - 7. 4. 2011.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지난 2011년 6월 25일부터 7월 4일까지 본교 동문인 유정수, 유혜란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Costa Rica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다. 이번 단기 선교팀은 신선묵 지도 교수와 이성희, 김도신, 홍우규, 박정은, 안현지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 주로 코스타리카의 북부지역에 위치한 Upala, Cabanga, Katira 세 지역의 교회를 방문하였고 많은 교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섬기고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비록 적은 인원이 참가하였지만 놀랍게도 많은 사역을 감당한 은혜로운 단기 선교였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하여 학생회, 선교 동아리, 독서 동아리, 교수, 직원 등 많은 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셨다.

제 1회 뮤지션 페스티벌

7. 9. 2011.

남가주지역에서 활동 중인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모여 한마당을 펼친 제1회 뮤지션 페스티벌이 9일 저녁 7시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페스티벌은 박선영 자매, 스티비원더와 무대를 같이했던 이승희 자매, 허지애 자매, 박갑수 목사, 정종원 목사(꿈이있는 자유), 박희진 교수(Musicians Inst.) 등이 나서 김진수(기타), 이병걸(베이스), 김영빈(드럼), 김호인(건반), 장하얀(건반) 등 월드미션대학교의 교수, 재학생, 그리고 졸업생들로 구성된 밴드의 연주에 맞춰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했으며, 재즈, 블루스, 팝, 락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불러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뮤지션 페스티벌을 기획한 월드미션대학교의 CCM과 김진수 교수는 "한인사회에 좋은 음악회가 있지만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은 전무한 실정이다.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크리스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좋은 크리스천 문화를 만들고자 이번 페스티벌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주 크리스천신문 전제 〈박준호 기자〉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 우승

10. 22. 2011.

10월 22일 Ralph B. Clark Regional Park 에서 남가주 신학대학 연합 체육대회가 열렸다. 참가한 학교는 총 4개 학교로, 국제 개혁신학원이 주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피구, 배구, 축구의 3 경기가 토너먼트로 진행되었다. 이날 여학우 경기인 피구는 준우승을 거뒀으며, 학교 팀 유니폼을 갖춰입고 조직적인 준비를 갖췄던 축구는 우승을 거둬 연합 체육대회에 참가한지 12년만에 처음으로 종합 우승의 성적을 거뒀다. 이날의 우승 트로피는 도서관에 진열되었다.

임동선 총장 미수 및 출판 기념회

11. 12. 2011.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이자 동양선교교회를 창립한 임동선 목사 미수 축하 및 출판기념회가 월드미션대학교 강당에서 동양선교교회 성도들과 월드미션대학교 졸업 및 재학생, 지인 및 가족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모든 참가자들에게 무료 증정된 임동선 목사의 설교신학에 관한 연구 '디아스포라 설교신학'은 현재 풀러 신학교 교수인 임윤택 목사가 저술하였다.

임동선 목사는 그 동안 '이 시대의 희망, 오직 복음'등 11권의 저서를 출간했고 1982년에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교육공로)을 받았고 1987년엔 톰 브래들리 시장으로부터 '로스앤젤레스 모범 시민상' 2003년엔 숭실대학교 추양목회대상, 그리고 2007년엔 한인 역사 박물관이 제정한 미주 한인 역사를 빛낸 인물상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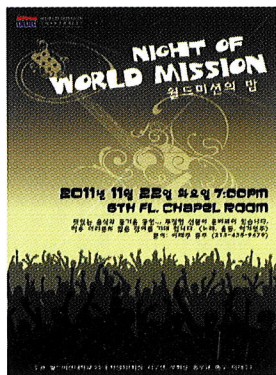
크리스천 뉴스위크 전제

월드미션의 밤

11. 22. 2011.

2011년 월드미션의 밤이 11월 22일(화) 저녁 7시에 본교에서 열렸다. 학우님들과 동문님들을 맛있는 만찬에 초대하며 시작된 행사는 월드미션에 소속된 재능있는 학우님들과 외부에서 섭외되어 온 외부 인사들의 축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되었다.

이날 많은 협찬을 받아온 학생회의 준비로 거의 참여자 전원에게 선물이 나눠졌으며 중간에 설교대회의 시상과 성경암송대회의 시상이 추가되어 잔치 분위기로 진행되어 졌다.

또한 교수님들이 힘을 합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마련에 동참하여 학생들에게 다음학기 등록 때 사용할 수 있는 장학쿠폰이 나눠지는 등 뜻 깊은 프로그램도 있었다.

2012 봄학기 개강부흥회

1. 24-26. 2012.

지난 1월 24일과 26일 양일간 2012년도 봄학기 개강 부흥회가 열렸다. 첫날인 24일에는 미주평안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송정명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4:15-16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셨다.

둘째날인 26일에는 본교 임종호 목사님이 레위기 7:11-21의 말씀으로 '화목제물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고 성찬식을 가지며 은혜롭게 새 학기를 시작하였다.

고 김영희 학우 부고 및 장례예배

2. 28. 2012.

김영희 학우님이 지난 2월 11일(토)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학교와 동문 그리고 학생회가 힘을 합하여 모든 장례 일정과 절차들이 은혜 가운데 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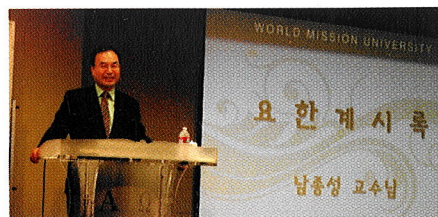
*재정보고

〈조의금〉	월드미션대학교 교직원	$ 3,200.00
	월드미션대학교 학생회	$ 2,448.00
	월드미션대학교 동문들	$ 730.00
	임옥경 학우 및 친구들	$ 1,100.00
	세계등대교회 교우들	$ 2,343.00
	대한장의사	장소 제공
	최쎄라 학우	유족 Care
	합계	**$ 9,821.00**
〈사용내역〉	장례비용	$ 900.00
	조화	$ 560.00
	식사	$ 310.00
	문구	$ 35.00
	교통비	$ 1,100.00
	기타	$ 300.00
	소계	**$ 3,205.00**
	유족에게 전달된 금액	$ 6,616.00
	합계	**$ 9,821.00**

학술 세미나

3. 27. 2012.

지난 3월 27일에는 2012년도 봄학기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학술 세미나의 강사로는 다우니 동양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며 본교에서 성서해석학, 신약 개론과 요한 계시록을 가르치시는 남종성 교수가 나와 요한 계시록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남종성 교수는 말세와 종말론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이 때에, 세상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우리가 요한 계시록을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는 요지의 강의를 하였고, 종말론에 대한 교회의 역할과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종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신앙관과 관점이 달라진다고 전했다. 학술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은 요한 계시록과 올바른 종말론에 대해 생각하고 깊이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학교 소식

선교 동아리 바자회

4. 17-19. 2012.

지난 4월 17일과 19일 양일간 본교 구내 식당에서는 선교동아리 캐나다 벤쿠버 단기 선교를 위한 모금 바자회가 열렸다. 이날, 모금 바자회를 위해 주위에서는 많은 책들과 옷 등을 기부하였고, 담당 신선묵 교수와 선교 동아리원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로 인해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받으며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음악과 심포지움

4. 26. 2012.

4월 26일 본교 채플실에서 음악과 주최로 "오늘날 개신교 예배에서의 음악,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음악과 학과장인 윤임상 교수가 진행을 하였고, 전통 Liturgy 관점에 김은철 박사(풀러신학교, 미주장신대)가 '한국 교회 음악의 특별한 사명' 이라는 주제로 그리고, Traditional의 관점에서는 진정우 박사(UCLA. Ph.D) '예배음악,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Contemporary의 관점에 정종원 목사(찬양사역자)가 이날 발제자로 참여해주었다. 발제자의 발표가 끝나고 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세미나 주제인 개신교 예배에서의 음악의 발전방향과 실용음악의 나아갈 바 등에 대하여 학생들과 발제자 간의 열의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학생 음악회

4. 14. 2012.

4월 14일에는 코리아타운 Pico 와 Norton 에 위치한 한길교회 (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제 11회 Student Music Festival 이 "When Classic Meets Contemporary On the Screen.."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연주회에서는 Moon River & All the things you are, 영화 삽입곡인 Mission Impossible(ver. Arirang), 디즈니 송 Beauty and the Beast & A Whole new world, 그리고 Sunny 등 Classic 과 Contemporary의 조합으로 여러 곡들을 선보였으며, 많은 호응 속에 성공리에 연주회를 마쳤다.

이날 다수의 재학생들과 동문들이 참석하였고 학생회에서는 주차와 행사 안내 등으로 봉사를 하여 아름답고 풍성한 친교의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

5. 5. 2012.

5월 5일 PASADENA 에 위치한 Brookside Golf Club 에서 본교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친선 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경기에서는 Medalist 에 김도신, Champion 에는 남자 송주성, 여자는 안영자, 그리고 남자 선수 종합 2nd 에는 서권천, 3rd 는 이용진, 가장 멀리 공을 친 기록을 수상하는 Longest 는 남자 김정필, 여자 이미옥, 마지막으로 공을 가장 근접하게 치는 기록을 수상하는 Closest 에는 남자 오태선, 여자 김영주 가 각각 상을 수상했다. 수상을 하는 시간과 경품을 추첨하는 시간은 학생회와 참가한 선수들 모두 화기애애한 시간이 되었다.

이날, 경기진행은 임종호 사무처장과 서무생 학생회장, 그리고 학생회가 수고를 해주었다. 학교의 임직원과 학생회가 힘을 모아 행사를 이끌어 가는 월드미션대학의 협동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졸업생 현황

1992년 제 1회

박대영 집사	Dip. 한국	
박현수 집사	Dip. 한국	
강성구 목사	M.A.	독일람슈타인 동양선교교회
김진숙 전도사	M.A.	한국 안디옥교회봉사
임성진 목사	M.A.	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김용식 목사	M.Div.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
오기열 목사	M.Div.	Talbot 박사과정
이법웅 목사	M.Div	LA 찬양교회 담임목사
조원하 선교사	M.Div.	

1993년 제 2회

고바울 전도사		
한은희 전도사	M.A.	
남조웅 목사	M.Div.	밸리청소년센터 원장
오윤화 전도사	M.Div	
유순자 전도사	M.Div	Fuller 목회학 박사
윤경호 목사	M.Div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이훈 목사	M.Div.	나성신보/언론인
임용한 목사	M.Div	

1994년 제 3회

고혜연		
김영희 전도사		중국 연변 현지 선교사
김성봉 전도사	B.A.	
김추자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병원선교 전도사
이영숙 전도사	B.A.	
박병철 전도사	M.Div	코너스톤교회 전도사
안국련 목사	M.Div	열매교회 담임목사
이극래 전도사	M.Div	
이승인 목사	M.Div	시애틀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이재현 목사	M.Div	Palmdale OMC 담임목사/WMU 운영이사
이정남 목사	M.Div	중국선교사/가주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종예 전도사	M.Div	
주영세 목사	M.Div	
함상배 목사	M.Div	OMC 후원 중국 선교사

1995년 제 4회

이은혜		
임금화 권사	B.A.	멕시코 선교
장코스모스 전도사	B.A.	중국선교사
홍문숙 전도사	M.A.	
김계회 전도사	M.Div	
김재선 목사	M.Div	
이제은 집사	M.Div	동양선교교회
조화진 선교사	M.Div	병원사역
최영희 선교사	M.Div	태국 파송 선교사

1996년 제 5회

박정숙 전도사		유니온교회 전도사
유경순 전도사	B.A.	
이명희 전도사	B.A.	뉴호프채플
김성조 사모	M.A.	중국선교사/오레곤 성결교회
박명보 선교사	M.A.	한국장로교회
백영두 장로	M.A.	Wycliffe Bible Translators
김덕규 목사	M.Div	새소망선교교회 담임목사
김성자 전도사	M.Div	밸리한인장로교회 찬양,교구 전도사
김애영 전도사	M.Div	부름선교교회
김인광 전도사	M.Div	킹슬리노인센터
김진국 목사	M.Div	
남윤희 목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노명섭 목사	M.Div	샌디에고 제일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박준림 목사	M.Div	보뇌르선교합창단 단장
서기자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윤재영 전도사	M.Div	
이주형 목사	M.Div	
최서혜 전도사	M.Div	

1997년 제 6회

권재옥 목사	B.A.	중국선교사
김동준 목사	B.A.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이성례	B.A.	
이혜정 전도사	M.A.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사
신봉례	M.Div	동양선교교회

1998년 제 7회

김인희	B.A.	
김효복	B.A.	동양선교교회
우병은	B.A.	
이경인	B.A.	
이해련 전도사	B.A.	생명의 빛 교회 전도사
전춘영 전도사	B.A.	밸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황성은 목사	B.A.	필그림 교회
권옥선 전도사	M.Div	장로교회 전도사
김주연 목사	M.Div	중국 연변 선교사
류창식 목사	M.Div	
신영희 전도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엄재헌 목사	M.Div	프랑스 거주
이인검 목사	M.Div	LA 주님의선교교회
전성도 전도사	M.Div	종려선교교회 전도사
전인순 전도사	M.Div	성서장로교회 전도사
한희숙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소망부 전도사

1999년 제 8회

김경례 전도사	B.A.	충현선교교회
정남숙 목사	B.A.	토렌스 제일장로교회 부목사
양준석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인수 목사	M.Div	
백우철 목사	M.Div	행복한 교회
윤성환 목사	M.Div	WMU 운영이사/윌셔연합감리교회 부목사
이명희	M.Div	뉴호프 채플
이상혁목사	M.Div	우리교회 목사
최학철목사	M.Div	중국선교사
조성운	M.Div	예수촌 교회

2000년 제 9회

강정학 목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박재민 목사	B.A.	
유동훈 목사	B.A.	멕시코 선교
이보경	B.A.	
조은혜 전도사	B.A.	남가주 하나교회
홍종우 전도사	B.A.	
송종은 집사	M.A.	
권재옥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대환 전도사	M.Div	
김동준 목사	M.Div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김인희 전도사	M.Div	
박정숙 전도사	M.Div	유니온 교회 전도사
전춘영 전도사	M.Div	밸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정영식 장로	M.Div	동양선교교회
조항목 목사	M.Div	아이다호 비전교회
황성은 목사	M.Div	필그림 교회

2001년 제 10회

김대준 선교사	B.A.	LA 비전교회
서필관 목사	B.A.	중국 선교사
오하영 전도사	B.A.	
이미랑	B.A.	뉴호프채플
진미애	B.A.	
진범서	B.A.	
진숙이 전도사	B.A.	무궁화침례교회
최영순 전도사	B.A.	선민교회 전도사
홍표란	B.A.	사랑의 교회
이해련 전도사	M.Div	생명의 빛 교회 전도사
조배성 목사	M.Div	나성중앙장로교회 전도사

졸업생 현황

2002년 제 11회

강태준 전도사	B.A.	나성양문교회
김선애 전도사	B.A.	풍성한 교회
김승원 집사	B.A.	창대 교회
김정옥	B.A.	중국
안용균 전도사	B.A.	울타리 교회
윤병완 전도사	B.A.	행복한 교회
이신재	B.A.	동양선교교회
주문경	B.A.	독일거주
최준영	B.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B.A.	나성양문교회
고영집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경례 전도사	M.Div	양문교회 전도사
김대준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은숙	M.Div	
유동훈 목사	M.Div	멕시코 선교사
한광덕 목사	M.Div	한길교회 담임

2003년 제 12회

구은혜 전도사	B.A.	
김경희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김연옥	B.A.	
윤희석	B.A.	한국
이갑년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옥	B.A.	아프리카 선교사
임양택 전도사	B.A.	소망교회
최임식	B.A.	IAM 교회
한석규 목사	B.A.	새길교회
배윤범 장로	M.A.	
오광찬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승희	M.Div	영락교회
김창국 선교사	M.Div	소천
박인호 전도사	M.Div	OMC 사역
박재민 목사	M.Div	
서필관 목사	M.Div	하나님나라교회
이후상 목사	M.Div	한국 사역
이희성 목사	M.Div	
장윤정 전도사	M.Div	베델한인교회
진성백 목사	M.Div	나성양문교회
최준철 강도사	M.Div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한은혜 전도사	M.Div	남가주 하나교회

2004년 제 13회

곽종혁	B.A.	
권인순 전도사	B.A.	미주평안교회
김규호 전도사	B.A.	IAM 교회
김수현 목사	B.A.	한빛교회
서상민 목사	B.A.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서영희 전도사	B.A.	KCC 교회
성육호 전도사	B.A.	세계선교교회
이만식	B.A.	
이미정	B.A.	알라스카
최현숙 전도사	B.A.	벨리 호산나교회
곽상채	M.A.	남가주사랑의교회
이신재	M.A.	동양선교교회
고영보 장로	M.Div	동양선교교회
김학송 목사	M.Div	중국 선교
김혜선	M.Div	콜롬비아 선교사
방헬렌 전도사	M.Div	라스베가스
변형철	M.Div	한국 군목
양성반	M.Div	하와이 군목
유정수 목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유혜란 선교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2005년 제 14회

강문정 전도사	B.A.	W.L.A. 한인교회
김덕호 목사	B.A.	사과나무교회
김박선미 집사	B.A.	열방교회
김연주 집사	B.A.	밸리찬양교회
김영애 권사	B.A.	쥬빌리형제교회
노광조 목사	B.A.	감사한인교회-아프카니스탄 선교사
이명옥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자 집사	B.A.	충현선교교회

2005년 제 14회 (계속)

오광탁 목사	B.A.	반석선교교회
최영석 전도사	B.A.	LA 한인침례교회
조경진 전도사	B.A.	선한목자교회
박정일 목사	M.A.	일본 선교
정부르스 목사	M.A.	소망과 사명교회
최선영 전도사	M.A.	WMU 사무처장
윤병완 전도사	M.Div	행복한 교회
이사무엘 목사	M.Div	한국 사역
임양택 목사	M.Div	소망교회
장시희 전도사	M.Div	Servant Church

2006년 제 15회

강명석	B.A.	
김선영	B.A.	
김소영	B.A.	
김영준	B.A.	다우니 OMC
박기용	B.A.	동양선교교회
박영산	B.A.	흰돌 교회
이귀란	B.A.	Cypress 침례교회
이인미	B.A.	둘로스 교회
이지나	B.A.	나성교회
정연희	B.A.	선한목자장로교회
박지은	B.A.	예수마을교회
김진주	M.A.	Cornerstone Church
문혜원	M.A.	올림픽 장로교회
강태준	M.Div	나성양문교회
김영종 목사	M.Div	새생명비전교회
노광조 목사	M.Div	감사한인교회
백희숙	M.Div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양덕승 목사	M.Div	베델 한인 교회
오하영 전도사	M.Div	시카고
우상문	M.Div	베델한인교회
이지혜	M.Div	Oriental Mission Church
장원욱 목사	M.Div	새생명비전교회
한대연	M.Div	베델 한인교회
최준영	M.Div	Oriental Mission Church
홍표란	M.Div	Christian Assembly

2007년 제 16회

김영철	B.A.	다우니 OMC
김명구 목사	B.A.	선한청지기교회
김룡	B.A.	횃불교회
김병성	B.A.	월셔온누리교회
김용일	B.A.	한국
Dan Son	B.A.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김현욱	B.A.	가까운교회
김혜정	B.A.	동양선교교회
박정애	B.A.	New Hope Chapel
오정성	B.A.	나성순복음교회
윤명주	B.A.	동양선교교회
이강천	B.A.	동양선교교회
이기영	B.A.	
이옥희	B.A.	마가교회
임중혁	B.A.	다우니 동양선교교회
장은혁	B.A.	온누리교회
정성자	B.A.	새생명비전교회
정세련	B.A.	엘사우스교회
한춘복	B.A.	평강교회
허영애	B.A.	유니온교회
윤성희	B.A.	동양선교교회
원영미	M.A.	새창조교회
김정신	M.A.	열린문교회
김연주	M.A.	시온교회
임명화	M.A.	영원한기쁨교회
전진수	M.A.	인랜드교회
홍선영	M.A.	새생명비전교회
강대홍	M.Div	남가주아시아교회
유동근 목사	M.Div	세계로선교회
김덕호 목사	M.Div	사과나무교회
서충석	M.Div	가든그로브 남가주가스펠교회
이혁우 목사	M.Div	밸리 하나로교회
장재영 목사	M.Div	베렌도한인침례교회

졸업생 현황

2008년 제17회

이름	학위	사역
곽창원	B.A.	
김그레이스	B.A.	베다니 한인교회
김경래	B.A.	
김대성	B.A.	LA 동양선교교회
김옥배	B.A.	충현성결교회
John Kim	B.A.	
박옥련	B.A.	중앙연합감리교회
석미연	B.A.	
심갑섭	B.A.	
안두환	B.A.	LA 동양선교교회
안정희	B.A.	말씀의 집 영유아부 전도사
엄인호	B.A.	
왕영신	B.A.	LA 동양선교교회
윤상숙	B.A.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이석주	B.A.	마가교회 새벽예배 인도, 장/청년부 성경공부
이원희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이정인	B.A.	
이흥구	B.A.	빌립 선교회 대표 목사
정병기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조광범	B.A.	새생명비전교회
주익성	B.A.	LA 동양선교교회
차세실	B.A.	성 바오로 성당 상담사역
채규태 목사	B.A.	Good Morning God Bless Mission/노숙자 사역
채동훈 목사	B.A.	마가교회
최은희	B.A.	남서울 은혜교회
최자란	B.A.	Calvary Chapel
권상욱	M.A.	세계비젼교회
김영안	M.A.	나성성결교회 Soloist
김주영	M.A.	미주평안교회 반주자
김희경	M.A.	나성금란교회
박양숙	M.A.	시온연합감리교회 성가대
백혜선	M.A.	한국
이나은	M.A.	윌셔연합감리교회
이미경	M.A.	Shepherd of the Hills Church
이미정	M.A.	Redeemer 장로교회
강석재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기회승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광주지역 간사
김상중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수현 목사	M.Div	샌디에고 한빛교회
김옥균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인철 목사	M.Div	St. John' s Presbyterian Church/국제 사역
김철수	M.Div	세계로 선교회/부르키나 파소 선교사
노명철 목사	M.Div	나성 주님의 교회 부목사
노창수 목사	M.Div	한국
박창식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남아공 프레토리아 선교사
송필오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부산지역 전임 간사
신중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오광탁 목사	M.Div	반석선교교회 목사
이대일	M.Div	새벽교회
이성균	M.Div	
이영섭	M.Div	세계로 선교회/서울지역 간사
이종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부산지역 간사
이종현	M.Div	동양선교교회
이지희	M.Div	가까운교회
이홍주 목사	M.Div	월드미션대학교 학생사역 Director
장윤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간사
장진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코트디부아르 선교사
Paul Chung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인도 선교사
조승환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하윤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캐나다 선교사
허종훈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일본 선교사
황만기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서울 지구 간사

2009년 제 18회

이름	학위
강동완	B.A.
곽동훈	B.A.
김나경	B.A.
김성아	B.A.
김제홍	B.A.
김중한	B.A.
노종주	B.A.
라인근	B.A.
박노라	B.A.
박용수	B.A.
박인성	B.A.

2009년 제 18회 (계속)

이름	학위
박중섭	B.A.
양한나	B.A.
오금미	B.A.
이현일	B.A.
이혜란	B.A.
조성은	B.A.
홍승미	B.A.
안영표	B.A.M.
이대명	B.A.M.
장주언	B.A.M.
정성희	B.A.M.
김도희	M.A.M.
류은미	M.A.M.
윤경미	M.A.M.
이경원	M.A.M.
조현주	M.A.M.
권은석	M.Div
김경숙	M.Div
김인숙	M.Div
목창명	M.Div
박원희	M.Div
박윤우	M.Div
박종환	M.Div
박홍열	M.Div
백인천	M.Div
서명호	M.Div
서상민	M.Div
안창규	M.Div
안창호	M.Div
유병진	M.Div
윤희석	M.Div
이기영	M.Div
이양우	M.Div
이태희	M.Div
임보영	M.Div
최준모	M.Div
한상훈	M.Div

2010년 제 19회

이름	학위
김경목	B.A.B.S.
김동환	B.A.B.S.
박병문	B.A.B.S.
박정훈	B.A.B.S.
손복남	B.A.B.S.
송윤효	B.A.B.S.
신주영	B.A.B.S.
장미영	B.A.B.S.
전금자	B.A.B.S.
정훈주	B.A.B.S.
조유미	B.A.B.S.
여현정	B.A.B.S.
이명은	B.A.B.S.
이미란	B.A.B.S.
이상천	B.A.B.S.
이용자	B.A.B.S.
이유수	B.A.B.S.
이해봉	B.A.B.S.
최세라	B.A.B.S.
함성호	B.A.B.S.
윤박선미	B.A.C.C.
이유순	B.A.C.C.
임윤수	B.A.C.C.
이재순	B.A.C.C.
홍성애	B.A.C.C.
김선봉	B.A.M.
김호인	B.A.M.
서소희	B.A.M.
이영수	B.A.M.
윤은영	M.A.T.
이근식	M.A.T.
정성자	M.A.T.
김인정	M.A.M.
박종휘	M.A.M.
성지현	M.A.M.
이현국	M.A.M.
이현진	M.A.M.
이현행	M.A.M.

2010년 제 19회 (계속)

이름	학위
조정미	M.A.M.
조준석	M.A.M.
김광영	M.Div
김규호	M.Div
김권수	M.Div
길선욱	M.Div
김기종	M.Div
김명구	M.Div
김문철	M.Div
김현진	M.Div
박상도	M.Div
박해영	M.Div
오진성	M.Div
최학선	M.Div
이원경	D.Miss.

2011년 제 20회

이름	학위
권영수	B.A.B.S.
김선애	B.A.B.S.
김선희	B.A.B.S.
김수지	B.A.B.S.
김주훈	B.A.B.S.
이성희	B.A.B.S.
임성건	B.A.B.S.
김성은	B.A.B.S.
김장환	B.A.B.S.
윤광선	B.A.B.S.
박덕례	B.A.C.C.
박옥임	B.A.C.C.
김성렬	B.A.M.
유영림	M.A.T.
이미란	M.A.T.
최일	M.A.T.
한정아	M.A.T.
홍귀주	M.A.T.
김용재	M.A.M.
김재숙	M.A.M.
김지환	M.A.M.
이지환	M.A.M.
전요셉	M.A.M.
곽종혁	M.Div
곽창원	M.Div
김대동	M.Div
김대성	M.Div
박선미	M.Div
김선영	M.Div
김정득	M.Div
금미화	M.Div
석미연	M.Div
신은혜	M.Div
오진	M.Div
유정진	M.Div
윤명주	M.Div
주익성	M.Div
추영선	M.Div
허영애	M.Div
강창호	M.Div
김근수	M.Div
문주철	M.Div
박표강	M.Div
서동욱	M.Div
서용철	M.Div
송창건	M.Div
송창호	M.Div
이미정	M.Div
이성은	M.Div
이원희	M.Div
정정일	M.Div
조중현	M.Div
한홍조	M.Div
허환구	M.Div
홍오선	M.Div
황지용	M.Div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Board Membership

Cho, Jung Hyun
Hwang, Jae Kil
Jung, Sung Kil
Kim, Jung Ki
Lee, Keum Hee
Lim, Grace EunJoo
Park, Young Gil
Chung, Jin Sik
Jay's Drug
Kim, Hyun Wook
Kim, Ok J.
Lee, Kyung Soon.
Lim, Steve S.
Sung, Byung Hyun
Hahn, James S.
Jung, Bong Mo
Kim, Jae Han
Kim, Thomas T.
Lim, Eun Hwa
Park, Ok Grace
Yoon, Sung Hwan

연합회 후원 WEMA Support

ALASKA OMC
DOWNEY OMC
CERRITOS OMC
HANBIT CHURCH
COLORADO OMC
WEMA

동문회 후원 Alumni Support

Chang, Cosmos
Kim, DaeDong
Kim, Jea Hannah
Lee, Ji-Hee
Lim, Sung Jin
Yeo, Hyun Jung
Eum, InHo
Kim, David KwonSoo
Kim, John MoonChul
Lee, Myoung Uk
Park, William ByungMoon
Yi, MyungEun Grace
Jun, Sung Do
Kim, Hyun Wook
Kim, Thomas T.
Lee, Sok Chu
Park, YoonWoo
Yoon, Sung Hwan

후원행사 후원 Fund Raising Event Donation

Ahn, Young Ja
Cho, Sang Kyun
Chun, Kwang Ho
Hong, Duk Shin
Kim, Chanhee
Kim, David
Kim, Kwang Don
Kim, Ryong
Koo, Josuha Jakyung
Lee, Jason JinHee
Lee, Sung Ki
Lim, Paul Jongho
Oh, Jae Sun
Rho, Yong Ho
Sin, Dam
Son, Daejin
Yoon, Sung Hwan
Cho, Jung Cha
Cho, Yong Jic, CPA
Chung, Jin Sik
Jang, Samduk
Kim, Daniel Youngsoo
Kim, Eric
Kim, Mary
Kim, Yoon Taek
Lee, Won Sok
Lee, Mi Ok
Lim, Sung Gil
Seo, Kwon Chun
Park, Sang Woo
Song, Ki Won
Wang, Leo Hee
So, James JungMin & KyeSook
LA Onnuri Mission Church
Cho, JungMi
Choi, Howard
Hahn, James S.
Ki, Samuel
Kim, David Doshin
Kim, Jong Suk
Kim, Phillip
Kim, Young Joo
Lee, Yong Jin
Lee, Sung Ho
Na, Haing Kyun
Shin, Seon Mook
Proland
Student Body
Wilshire State Bank

장학금 후원 Scholarship Donation

AGAPE Christian School
Chan Lee Professional Corp
Downey OMC
Kwon, KiBong
Lee, You Soo
Seo, MooSaeng
Student Body
Glendale Grace Church
Immanuel Scholarship Foundation
New Life Mission Church
Park, HyungJoon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California Dental Group
CYR International Inc.
Kim, James SungJoon
Lee, Kyong Hun
Proland
Shin, Grace MyongSook
Yi, NoUng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Irvine Onnuri Church
New Life Vision Church
The Lord's Community Church
World Vision Church

기도후원회 School Prayer Support

An, HyeonJi
Chang, Lan Hee
Choe, Hye Suk
Eum, InHo
Hwang, Jae Kil
Kang, Byeong Chan
Kim, David KwonSoo
Kim, Hyun Kil
Kim, Jin Soo
Kim, Kyung Bae
Kim, Ok J.
Kim, Sun Young
Kim, Yong K
Koo, Eun Hye
Lee, Chong Hyune
Lee, HyunKi
Lee, KwonHeon
Lee, Sok Chu
Lim, Aaron
Lim, Grace EunJoo
Lim, NamKyu
Lim, Sung Jin
No, Kie Youn
Park, Christina
Park, Min Young
Park, YoonWoo
Shin, Seon Mook
Zhou, Joey
Um, Hee Sun
Woo, Tony
Yeo, Hyun Jung
An, TaeYang
Cheung, Young
Choi, Howard
Hong, Ugyu
Jun, Sung Do
Kim, DaeDong
Kim, Hwang & Helen
Kim, Hyun Wook
Kim, John MoonChul
Kim, Kyung Soon
Kim, Se Yoon
Kim, Thomas T.
Kim, Young Yi
Koo, SunMi
Lee, David
Lee, Ji-Hee
Lee, Kyung Soon.
Lee, Sun Hee
Lim, Esther
Lim, Keum Hwa
Lim, Paul Jongho
Moon, MyungSang
Oh, David Kwangtak
Park, Hye Sook
Park, Ok Grace
Petroni, ChunHwa
Song, UnCheol
Yi, MyungEun Grace
Chae, JungWeon
Cho, MyungHi
Choi, KwangOk
Huh, Min Haeng
Jung, Andrew
Kim, David Doshin
Kim, Hyoung Chol
Kim, Jea Hannah
Kim, JungBae
Kim, Mi-Kyung
Kim, Stacey
KIM, William H
Ko, JeongSeok
Kwak, ChangWon
Lee, Hong Joo
Lee, Keum Hee
Lee, Myoung Uk
Lee, Won Hee
Lim, Eun Hwa
Lim, MooSung
Lim, Sharon
Nam, Jin Joo
Oh, Jung Sung
Park, Jung Ae
Park, William ByungMoon
Seong, Jonathan
Sung, Byung Hyun
Yoon, Myung Ju
Good Samaritan Mission Church
The Bright Future of God Church
Yang, Yong J & Myung H

일반 후원 Other Donation

Chang, Chung Sook
Chung, Jin Sik
Hong, Ugyu
Jeung, JeungIl
Kang, Soon Duk
Kim, Hak Sook
Kim, Kyu Ho
Lee, Byung In
Lee, Keum Hee
Lee, Myoung Uk
Lee, Yeong Dai
Lim, Eun Ja
Lim, Seung Il
Mun, JuChul
OMC-Austin
Proland
Shin, Seon Mook
WEMA
Yoon, Sung Hwan
Chey, George S.
CLMM
Hwang, Jae Kil
Jumaum Church
Kim, Choo Ja
Kim, HwaCha
Kim, Stacey
Lee, Byung Joo
Lee, Kyung Dong
Lee, Sok Chu
Lim, Esther
Lim, Grace EunJoo
Lim, Sung Jin
Nam, Jin Joo
Park, Hye Sook
Rev. Byung Tae Lim
Song, Jung Myung
Yoon, ImSang
Cho, Yong Jic, CPA
Ham, Jung Hee
Hwang, So Myung
Jung, Sung Kil
Kim, Chun Hea
Kim, Ki Sung
Kim, Thomas T.
Lee, Hong Joo
Lee, Kyung Soon.
Lee, SungEun
Lim, Eui Jin
Lim, Paul Jongho
Min, Byung Duck
Nam, Jong Sung
Park, Sunmi
Rome Korean Church
Suk, Andrew T.
Yoon, Myung Ju

Byun, Dug Yong & Shin Woo
L.A. Christian Mutual Asst Foundation
Lee, Yong Goog & Hee Sun
OMC- YeoSangRak Mission
California Dental Group
Lee, Hyung Soo & Eun Joo
Oh, MyungYeop & Hee Cha
Pio, Young K & Suzie W

월드미션 대학교 교가

씩씩하게
Allegro Moderato ♩= 120
임동선 작사
박제훈(1992.5.30)
1.주 님 이부 – 르 – 셨 네 주님 이 부 르 셨 네 추 수 할일 – 꾼 –
2.주 님 이보 — 내 — 시 네 주님 이 보 내 시 네 죽 기 까지 — 충성
6
되 라 우리 를 부 르 셨 네 제력 하 문 연마 하 라 인격 영 력길 러보
하 라 우리 를 보 내 시 네 모든 민 족 재자 삼 아 땅끝 까 지증 인되
12
라 (길러보라) 주 – 님 (주님)이 부 르 셨 네 주 – 님 이부 르 셨 네
라 (증인되라) 주 — 님 (주님)이 보 내 시 네 주 — 님 이보 내 시 네
17
solo piano or orchestra 주 님 만스 – 승 –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21
교 주 님 만 을 스승 삼 은 우 리 월 드 미 션 대 학 교